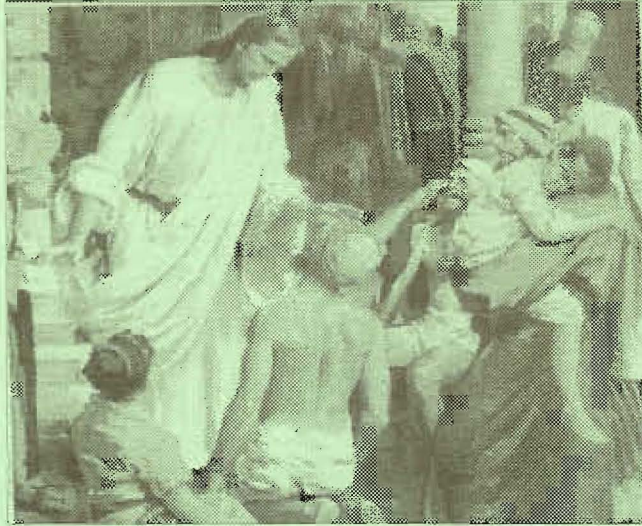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23주일(순교자 성월)
제32권 41호(나해) 2012-9-9

[묵상]



"에파타!"...예수님은 백성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네.

보라, 너희의 하느님을!
그분께서 오시어 너희를 구원하실 때
귀먹은 이들은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이의 혀는 환성을 터뜨리리라.

이사야가 메시아를 두고 한 예언을
기억하는 이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이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귀먹고 말 못하는 이 앞에 서신 예수님,
그가 원하신 것은 환자의 치유가 아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입니다.

"에파타!" 곧 "열려라!"하고 말씀하시며
그가 가로막혀 있고 묶여 있던 것을
열어 제치고 풀어서 해방시키십니다.
이제 그는 제대로 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숨길 수 없습니다.

치유하길 원하신 것은 그의 귀와 혀가 아니라
가로막혀 있고 묶여 있던 그 자신이듯,
"열려라"하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고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저희 모두를 향한 외침이십니다. -櫃-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립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뜨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례(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페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거룩한 전례 안의 하느님 말씀

“(교회)는 이렇게 구속의 신비들을 기억하며, 자기 주님의 풍요로운 힘과 공로가 모든 시기에 어떻게든 현존하도록 그 보고를 신자들에게 열어, 신자들이 거기에 다가가 구원의 은총으로 충만해지도록 한다.”

그러므로 저는 교회의 목자들과 사목에 종사하는 이들에게, 모든 신자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신비들을 보게 하며, 때마다 전례 안에서 펼쳐지는 하느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맛보게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것이 또한 성경에 올바르게 다가가는 기초가 됩니다.

성경과 성사들

53). 하느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서 전례가 지니는 중요성을 논하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성경과 성사적 행위 사이의 관계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교회의 사목 활동에서, 그리고 신학 연구에서 말씀과 성사의 관계를 더 깊이 다루는 것은 지극히 필요한 일입니다. 분명 “말씀 전례는 교회에서 거행하는 각종 성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사목에서 신자들이 언제나 이러한 연관을 인식하고 행위와 말씀 사이의 일치를 파악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사를 집전할 때 교회의 직무 안에서 말씀과 성사가 이루는 일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일은 사제들과 부제들에게 숙한 임무”입니다. 실상, 말씀과 성사적 행위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 자체의 수행적 특성의 힘으로 역사 안에서 행하시는 하느님의 활동이 전례적인 형태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 안에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행하시는 것 사이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분의 그 말씀이 바로 살아 있고 힘이 있습니다. (히브 4,12 참조).

히브리어 표현인 다바르(dabar)의 의미도 보여 주듯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례 행위에서 우리는 말씀하시는 것을 실현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만납니다. 하느님의 백성에게 전례에서 하느님의 말씀이 지니는 수행적 특성을 발견하도록 교육함으로써, 그 백성이 구원 역사 안에서 그리고 그 구성원들 각각의 개인적 삶 안에서 하느님의 활동을 알아보게 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과 성찬례

54). 지금까지 말씀과 성사들의 관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말했던 것은, 성찬례 거행에 연관시켜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

토 요	(연)박문규 프란치스코
특전미사	(생)김화경 스텔라
주 일 낮 미사	(연)이경용 야고보, 박영춘 안토니오, 김령자 사라, 김풍길 바오로, 김인숙 마리아, 김차옥 요셉, 고준희 제임스, 이중기 대건안드레아, 김치곤 바오로, 이승록 베네딕도 & 마선영 마리아, 김창운 & 편성근 모든 나테아, 모든 순교자 (생)이윤조 글라라, 황학수 마리아, 김은정, 강숙경 도미니카, 문클라라 & 진우, 권순길 체칠리아, 윤은경 미카엘라 가정, 민영준 마르코 & 민석준 토마스 가정, 요셉회원가정들, 남가주 제35차 여성꾸르실로 참가자와 봉사자 (이진원 루시아, 윤두형 유스티나, 유수정 클라라,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임혜은 도로테아)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이사야서(Isaiah) 35,4-7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내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제 2독서 야고보서(James) 2,1-5

복음 ㉠ 알렐루야.

환호송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복음 마르코(Mark) 7,31-37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 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43	243	208
봉헌	268	268	269
성체	292	292	285
파견	339	339	339

예수님의 치유

“저분이 하신 일은 모두 홀통하다.”(마르 7,37)

예수님의 사랑은 섬세하며 구체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사랑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치유의 손길로 드러난 사랑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에 감동을 줍니다.

예수님의 치유에는 세 가지 리듬이 항상 배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보여 주신 사랑의 왈츠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마태 14,14) 예수께서는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셨고..., 측은한 마음이 드셨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이는 보고..., 불평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대부분 사람들이 밝는 세 가지 리듬과는 달리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사람들을 보시고 연민의 정을 느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군중을 향한 예수님의 측은지심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취하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군중이 가엾구나. 벌써 사흘 동안이나 내 곁에 머물렀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말이다. 길에서 쓰러질지도 모르니 그들을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마태 15,32) 그래서 예수님께서 빵과 물고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았습니다.

시각 장애를 가진 사람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깊이 동정하시며 응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자, 그들이 곧 다시

보게 되었다.”(마태 20,34)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셨다. 그들이 목자 없는 양들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다.”(마르 6,34)

우리는 예수님께서 슬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측은히 여기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을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 마침 사람들이 죽은 이를 메고 나오는데, 그는 외아들이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 ...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젊은이여,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이가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루카 7,12-15)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먹이시고, 치유하시며, 가르치시고 살리셨습니다. 측은지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측은지심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열정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종교는 단지 ‘존재’ 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위’가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 이전에 ‘느낌’이 선행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후에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으며 당신 존재에 관한 지을 수 없는 인상을 남기셨습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구로2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신덕례 테레사	남성철 베네딕도
제1독서자	임정빈 보스코	이민상 요한	유철희 바오로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이순자 비비안나	유현자 안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이호미 엘리사벳	박희자 마리아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9월 교회에는 해마다 9월을 순교자들을 더욱 공경하고 기억하는 순교자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순교자들 대축일 경축이동 : 23일(주일:본당의 날)

◆ 한가위 합동위령미사
 ● 9월30일(주일) : 오전 7시30분, 오전 11시
 분향예절이 있습니다.
 (오전9시30분 학생미사는 일반주일미사로 봉헌합니다.)

- ◆ 예비자 교리(및 신자 재교육) 시작했습니다.
 ● 교리시간 :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후(세례신자들 중에 교리를 다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 청소년분과위 친목모임
 ● 일시 : 오늘 주일(9일) : 오후 4시, 친교장(BBQ 파티)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한국학교 교사, 배문청년회 회원, 자모회간부(부부동반하셔도 됩니다.)
 ● 문의 : 청소년분과장 남성철 베네딕도 ☎(310)408-1443
- ◆ 본당 제대회 총모임
 ● 일시 : 9월16일(주일) 낮미사후 강당
 (점심을 함께 한후 지난 1년간 사업보고가 있습니다.)
 ● 문의 : 제대회장 윤경옥 실비아 ☎(909)557-7490
- ◆ 남가주 제35차 여성 푸르실료 참가자들을 위한 기도
 백삼위 본당에서 올해 남가주 제35차 여성 푸르실료에 4명의 수강자와 1명의 봉사자가 참가합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정 : 9월20일(목)~23일(주일), 엘 카멜로 피정의 집
 ● 수강자 : 이진원 루시아, 윤두형 유스티나, 유수정 클라라, 한길선레 스콜라스티카 * 봉사자 : 엄혜은 도로테아
 ● 문의 : 간사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 요셉회 교우간 인사 나누기 캠페인
 요셉회에서 본당 교우들간에 "서로 인사합니다" 캠페인을 벌입니다.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 백삼위 본당의 날 행사 안내
 ● 일시 : 9월23일(주일) 오후 1시 30분 성전
 ● 행사내용 : 구역별 장기자랑대회(6구역)
 ● 시상 : 1등 \$300, 2등 \$200, 3등 \$100
 ● 친교나눔 : 오후 5시부터 친교장
- ◆ 안나회 효도관광 일정 변경
 ● 일시 : 10월30일(화)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10월2일(화)까지, 55세이상 선착순 45명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겹옷, 타올
 ● 문의 : 한춘선 루시아 안나회장 ☎(310)738-4387
- ◆ 개정된 메디케어 건강보험/올바른 장례준비 강의
 ● 일시 : 10월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강당
 ● 강사 : 이정훈 안셀모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 홈페이지 동호회에 초대합니다.
 ● 성당 홈페이지에서 사진과 글로 소식을 나누는 모임.
 관심있는 교우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 홈페이지(<http://103skcc.org>)의 알림게시판 참조
 ● 문의 : 현석주 아오스당 ☎(310)594-9472
- ◆ 남가주 M.E. 30주년 기념책자 발행
 ● 1차(1982년)~43차(1999년) 수강자들의 단체사진, 명단, 행사사진 등을 수집합니다.
 ● 책자에 게재할 광고 접수
 ● 문의 : 정동호 하삼바오로 & 병옥 율리아 ☎(310)780-9055

-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9월9일(주일) : P.V. 2반(제육볶음+상추쌈 \$3)
 주일학교(피자)
 ● 9월16일(주일) : 토런스 동1반(카레라이스 \$3)

지난주 우리들의정성

교무금	강윤철 김교복 김선제 김영경 김옥찬 김 옥 김원모 김재영 김정웅 김정희 김종렬 김현숙 노천수 민기남 박상준 박씨니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배기엽 서성용 석순영 안재만 원건희 이근모 이남현 이명자 이상석 이석진 이은록 이인석 이종문 전시웅 전정일 정남형 정병훈 정정현 주대종 지경수 최기남 한경희 황인중 황학수 영희가보라 한길선레 합계 : \$4,280	성전헌금	강윤철 김교복 김선제 김 옥 김원모 김현숙 노천수 민기남 박씨니 박정희 방정복 서성용 석순영 안재만 원건희 이근모 이명자 이상석 이석진 이은록 이인석 이종문 전정일 정정현 주대종 지경수 최기남 황인중 영희가보라 한길선레 합계 : \$2,910
미사헌금 : \$2,605	2차헌금 : \$1,079	감사헌금 : 한알렉스 이태호 이현주	주보광고후원 : \$75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주일학교 / 한국학교 오늘(9일)부터 개학

- 학생미사 : 오전 9시30분
- 주일학교 수업 : 오전 10시30분(지참물 성경)
- 한국학교 수업 : 낮 12시

주일학교 2013학년도 Teacher Lesson Plan 세미나

- 일시 : 오늘 주일(9일) : 낮 12시~오후 4시 강당
- 대상 :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밴드 보컬 모집

- 대상 : 미사곡 및 찬양에 관심있는 주일학교 학생들 (남학생 환영)
- 문의 : 리노 윤 그레고리오 음악담당교사 ☎ (310)613-3045

한국학교 설명회

- 일시 : 오늘 주일(9일) : 학생미사후 오전 10시30분 강당
- 대상 : 학부모님들과 자녀들의 한글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한국학교 교장 김화경 스텔라 ☎ (310)464-7490

주일학교 등록접수

- 등록비 : 첫째 \$140, 둘째 \$120, 셋째 \$100
자모회비 \$40(가정당)
- 등록일시 : 오늘 주일(9일)부터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 (213)258-8665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받고있습니다.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 11시미사 전후

남가주 소식

장애인 후원을 위한 '1일 점심과 차'

- 일시 : 9월15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인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메뉴 : 갈비우거지백반
- 거라지세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문의 : ☎ (213)387-3301 김윤희 소화데레사 수녀

제16회 남가주한인 가톨릭 미술가협회 정기전시회

- 일시 : 9월15일(토; 오프닝리셉션 오후5시)~28일(금)
- 주제 :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 전시내용 : 그림, 사진, 설치미술, 조각, 공예 등 20여점
- 장소 : Lee & Lee 갤러리(3130 윌셔블러바드 #502, LA)
- 문의 : (213)365-8285 * 빌딩 뒤와 지하에 주차장 있음

'말씀의 초막절' 축제미사에 초대합니다.

- 축제시작 : 9월16일(주일) 오후 4시
개회미사 : 주례사제 김기현 알렉스 신부
- 평일초막예절 : 17일(월)~22일(토)
- 장소 : 미주성서모임센터(부에나파 6751 웨스턴 애비뉴)
- 문의 : ☎ (714)521-1345 조마오로 수녀

노공동체 9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정희 올리아 780-3787 9/8(토) 오후 6시 성당
	2	김찬구 요한 701-6343	오안젤라, 조마리아 408-7697 9/8(토) 오후 7시 성당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9/14(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약외모임 989-0366 9/7(금) 오후 6시 할라웃보울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9/9(주일) 오후 1시 성당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9/9(주일) 오후 1시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조준재 요셉 424-263-2493 9/21(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9/18(화) 오전 11시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본당의 날 행사 대체 9/23(주일)
토런스 북 최미영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오세원 아타나시오 490-3358 9/8(토) 오후 6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주대종 다니엘 818-640-3656 9/8(토) 오후 7시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고천용 377-6328 9/14(금) 오후 6시30분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9/15(토) 오후 7시 성당강당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796-6763 9/15(토) 오후 7시 성당강당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영화가보라 프란체스카 617-3568 9/11(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 모임	오후 1시
----------	-------

겨자씨의 비밀

겨자씨의 비밀을 발견한 것은 최근에 우연「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을 다시 읽은 후였습니다.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책은 읽을 때마다 감동을 불러일으키는지 지금껏 수차례 읽었음에도 새로운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널리 알려진 데로 15살에 가르멜수도회에 들어가 24살에 선종함으로써 10년도 못 되는 짧은 수도원생활을 한 새내기 성녀입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대부분 그러하였듯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거나 새로운 수도회를 창립하거나 순교를 하거나 성덕을 이루기 위해서 초인적인 신앙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봉쇄수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마룻바닥을 닦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과 같은 평범한 일상생활에 전념하였던 수도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성녀가 되기를 꿈꾸었던 데레사는 ‘구름을 찌르는 높은 산’과 같은 성인들에게 비하면 사람들의 발아래 깃뚫히는 ‘작은 모래알’과 같은 자신의 무능함에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데레사는 ‘하느님께서 이루지 못할 일을 내게 일으키게 하진 못하실 것이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고 그 길을 가리켜달라고 기도하고 성서를 찾아보았을 때 이 구절이 눈에 띄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서에는 ‘누가 만일 아주 작은 자이거든 내게로 오라’(잠언 9,4)고 하시는 ‘영원한 지혜’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성녀는 ‘십자가의 성 요한’의 “순수한 사랑에서 나오는 아주 작은 행동이 하느님의 눈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다른 사업을 모두 한데 모은 것보다도 교회에 유익하다.”(영혼의 노래)라는 말에 용기를 얻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일’이야말로 자신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주 소소하고 그러니까 마룻바닥에 떨어져 있는 마늘 하나를 주을 때에도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우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영혼 하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는데 조그만 희생하나 눈길 한 가닥,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주 작은 것도 이용하고 그것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성인의 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녀 소화 데레사가 발견한 ‘겨자씨’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베드로의 ‘무슨 소리를 하는지 자기도 모르고 한 말’(루카 9,33)처럼

‘스스로 나팔 부는 위선’(마태 6,2 참조)이거나 ‘되풀이 되는 빈말’(마태 6,7 참조)일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애매한 믿음이야말로 주님께서 꾸짖는 ‘약한 믿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신 것은 46년이나 걸린 솔로몬의 거대한 성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성전)을 아끼는 사랑의 열정’(요한 2,17 참조)입니다. 주님은 심지어 돈과 권력과 꾀변으로 얼룩진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질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은 우리들의 수도원인 가정 속에서부터 타올라야 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은 평화로운 곳이 아니라 평화를 이루기 위해 겨자씨와 같은 작은 희생과 헌신과 양보와 인내들이 불꽃처럼 부딪치는 울코트 프레스의 격전장입니다. 소화 데레사는 이 ‘작은 길’을 끝까지 달려가 작은 모래알이 되어 자신이 원했던 데로 ‘목숨이 다하는 날 빈손으로 주님께 나아감’으로서 우리에게 ‘장미의 꽃비’를 뿌리는 가톨릭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수호성인이 되었습니다.

소화 데레사는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이 중에 간 어머니를 찾아 우는 아기처럼 하면 된다.’ 우는 아기 데레사가 성녀가 되었다면 감히 우리도 성덕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음식을 만들 때도 데레사처럼 사랑으로 하고, 자식들을 아기 예수처럼 대하고, 아내를 성모님처럼 공경하고,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은 성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만권을 읽은 책의 내용이 겨자씨와 같은 이발(李勃)의 더릿 속에 깃들 수 있듯이 이러한 겨자씨의 믿음이야말로 수미산을 움직이고, 새들이 날아와 둥지를 틀 수 있는 거대한 숲을 이루는 하늘나라의 열쇠인 것입니다.

◆최인호 /작가<서울대교구 주보 자료>

들풀소식

목우가 쏟아지고 강풍이 불었습니다.

지붕이 날아가고 콘크리트벽이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달리던 화물차가 뒤집히고 방파제가 무너졌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지나가도 흔들리던

쑥부쟁이, 만수국아재비, 산썸바귀는 그대로더군요.

꽃잎 빛깔 하나 잃지 않고서.

많이 살아봐야 한 두해살이인 풀꽃들이요.

◆이영 아네스 / 수필가